[MLB]최희섭18일 신시내티서 훈련 재개

written by 나라사랑 / 2003-06-16 17:45:56

‘ 빅초이가 돌아온다.

,

시카고 컵스 최희섭(24)이 1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재개한다.

경기 중 머리를 다쳐 그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최희섭은 최근 건강을 되찾아 17일이나 18일께 팀이 원정 중인 신시내티에 합류,곧바로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지역언론들은 16일 일제히 구단 트레이너인 데이비드 툼바스의 말을 인용,최희섭의 팀복귀와 훈련재개 소식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툼바스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 최희섭이 더 이상 병원에서의 검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17일 의사들의 최종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신시내티로 이동하던지 늦어도 18일까지는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 고 밝혔다.

툼바스는 또 “ 이미 구단에선 글러브와 타격 때 필요한 헬멧 등을 신시내티로 보냈다.

경기 출장은 아마도 마이너리그에서 몇 경기를 뛰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고 말했다.

최희섭은 17일 오전 중으로 구단 주치의와 뇌담당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인 3자 회의에서 최종 몸상태를 판정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미 구단 주치의로부터 운동스케줄을 짜자는 말을 들었을 만큼 몸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최희섭도 최근엔 집에서 가까운 미시간호에 나가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면서 팀에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희섭은 지난 8일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전에서 4회초 1사후 제이슨 지암비의 플라이볼을 잡으려다 투수 케리 우드와 충돌,뇌진탕을 일으켰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찧어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병원에 후송돼 의식을 찾았지만 후유증으로 병원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다.

부상 후 9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도 올랐다.

최희섭은 17일부터 팀에 합류하더라도 곧바로 경기엔 나설 수 없다.

부상자명단에서 해제되는 시점이 24일이나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컵스는 24일 경기가 없다.

따라서 최희섭이 마이너리그 재할과정까지 성공적으로 거친다면 25일 리글리필드에서 열리는 밀워키전부터 출장이 가능하다.

최희섭은 부상 전까지 49경기에 출장,타율 2할4푼4리에 7홈런 22타점을 기록했다.